

국어 심리형용사문의 몇 가지 문제

김 세 중

0. 심리형용사¹는 형용사 중에서 특이한 문법적 행동을 보이는 어휘부류이다. 때문에 영어의 경우에서나 국어의 경우에서나 심리형용사구문에 대해서 통사적, 의미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심리이동 변형이 제기되었고, 타동적 형용사(transitive adjective)의 부류가 설정되었으며, 국어에서는 이른바 ‘이중주어(격)문’의 한 종류로서 통사 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 글은 첫째, 현대국어의 심리형용사구문의 통사 구조에 대한 논의를 논항구조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둘째, 심리형용사에 속하는 어휘들의 공통성과 이질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문제에 대해서는 변형문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논의가 있어 왔다. 주로 ‘이중주어문’(또는 ‘주격중출문’)의 한 종류로서, 실현되어 있는 두 개의 명사구의 문장성분이 각각 무엇인가가 논의의 대상이 되어서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본고는 그 중에서 임흥빈(1974, 1985)에 대해 그 문제점을 주로 논의할 것이다.

둘째 문제에 대해서는 Cook(1968), Yang(1972), Lee(1976), Kim(1978), 김영희(1980), 강범모(1983), 홍사만(1985), 김홍수(1988)의 업적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국어의 이른바 ‘이중주어문’ 또는 ‘주격중출문’에 대해서는 많은 통사, 의미론적 논의가 있어 왔다. 다음이 그 예들이다.

- (1) 코끼리는 코가 길다.
- (2) 영희는 재주가 많다.
- (3) 나는 딸이 있다.
- (4) 영희는 보복이 두려웠다.

¹ ‘심리동사’(psychological verb)가 흔히 통용되고 있다. 이 ‘심리동사’라는 용어는 동사(동작동사), 형용사(상태동사)를 포괄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고는 형용사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심리형용사’를 사용한다. 심리동사(동작동사)구문과 심리형용사(상태동사)구문이 어떤 통사적 동기에 의해서 ‘심리동사’라는 한 가지 범주에 묶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1)~(4)의 문장에는 하나의 형용사 서술어에 두 개의 명사구가 실현되어 있다. 이들 문장에서 어느 명사구가 주어이며, 주어 아닌 명사구의 문장 성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논의의 초점이었다. 그런데 (1)~(3)과 (4)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1)~(3)의 경우에는 서술어인 ‘길다’, ‘많다’, ‘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논항이 하나이지만, (4)의 서술어인 ‘두렵다’가 요구하는 논항은 둘이라는 점이다.² 그러므로 (4)에 대해서는 (1)~(3)과는 다른 통사 구조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본고는, 주격중출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논항 구조가 (4)와 다르기 때문에 (1)~(3)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4)와 같은 문장, 이른바 ‘심리동사구분’의 통사 구조에 대해서 대략 아래의 다섯 가지의 분석이 제시되었다.

- (가) 수행문의 기저구조 또는 ‘-아/어 하다’ 타동사문으로부터의 도출 Lee(1970) 등
- (나) [주어-AP[목적어-서술어]]의 구조로 파악하는 분석 정인상(1980) 등
- (다) [주제어-S[주어-서술어]]의 구조로 파악하는 분석 임홍빈(1985) 등
- (라) [주어-S[주어-서술어]]의 구조로 파악하는 분석 허용(1983) 등
- (마) [주어-AP[보어-서술어]]의 구조로 파악하는 분석 Chung(1986), Lee & Kim(1988) 등

(가)와 (나)에 대해서는 분석의 무리함이 쉽게 설명이 된다. (가)는 복잡한 변형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 (나)에 대해서는 박병수(1983)에서 무리한 분석인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고 본다. 본고는 (다)의 분석에 대한 검토, 비판이 주가 된다. 그리고 (라), (마)는 모두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글에서는 (마)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심리형용사(주관형용사)는 속성형용사(객관형용사)와는 의미, 통사 양면에서 구별이 된다. 의미적으로 심리형용사는 사람이 품고 있는 감정에 대해 기술하는 부류이고, 속성형용사는 관찰할 수 있는 외부대상의 속성에 대해 기술하는 부류이다. 이에 따라 심리형용사는 감정의 주체인 경험주와 감정의 대상 또는 원인이 각각 논항으로 요구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³ 반면에 객관형용사는 사람의 감정 아닌, 외부대상에 대한 기술이므로 한 자리 서술

² 이 점에 대해 임홍빈(1985:348-355)은 의견을 달리 한다.

³ 심리형용사라고 반드시 논항을 두 개 다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개의 논항 중에서 필수적인 것은 경험주이고, 대상은 임의적이다.

어이다.⁴

심리형용사가 가지는 논항에 대해 임흥빈(1985:348)은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 있다.

(5)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심리동사’구문으로 논의되어 온 (5)와 같은 문장에서 ‘호랑이가’만이 ‘무섭다’가 요구하는 논항이고 ‘나는’은 ‘무섭다’의 논항이 아니고, 논항과 무관한 주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흥빈(1985:350)에서는 ‘나는’이 실현되지 않은 (6)과 같은 문장도 문법적인 문장이다.

(6) 호랑이는 무섭다.

그리하여 임흥빈(1985:353)은 심리동사구문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논항을 반드시 두 개를 요구하는 형용사의 무리들이 있다.

(7) 가. 나는 호랑이가 부럽다.

나.*호랑이는 부러운 것이다.

(8) 가. 어머니는 아들의 소식이 무척 궁금했다.

나.*아들의 소식은 무척 궁금했다.

(7),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럽다’, ‘궁금하다’는 이른바 ‘정언문’을 만들 수 없다. 즉, 총칭적인(generic) 표현을 구성할 수 없다. ‘부럽다’는 부러움을 느끼는 경험주가 있어야 하고, 부러운 대상이 있어야 하며, ‘궁금하다’도 마찬가지이다. 임흥빈(1985)에서 ‘심리동사’구문을 부정하게 된 것은 ‘무섭다’를 대표로 삼고 예로 들었기 때문이다. 즉, ‘무섭다’는 심리형용사로도 쓰이고 객관형용사로도 쓰이는 어휘인데, 객관형용사로서의 용법에만 주목했기 때문에, ‘무섭다’의 논항이 하나라는 입장을 고수하게 된 것이다.

형용사는 객관형용사의 용법만을 가지는 형용사, 객관형용사와 심리형용사 용법을 다 가지는 형용사, 심리형용사의 용법만을 가지는 형용사로 분류가 된다. 그 근거로 다음을 제시할 수 있다.

⁴ 홍사만(1985:141-155)에서는 다른 분류가 제시되어 있다.

(가) 영수는 철문학에 밝다.

(나) 그는 GB이론에는 어둡다.

(가), (나)같은 예에서 ‘밝다’, ‘어둡다’는 주어 밖의 논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9) 가. 그 사람은 어리석다.
 나. 그 사람은 어리석기로 소문이 났다.
 다. ?나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⁵
- (10) 가. 그 할아버지는 무섭다.
 나. 그 할아버지는 무섭기로 소문이 났다.
 다. 나는 그 할아버지가 무섭다.
- (11) 가. *그 개는 부럽다.
 나. *그 개는 부럽기로 소문이 났다.
 다. 나는 그 개가 부럽다.

‘-기로 소문이 나다/유명하다’ 구성을 취할 때 (11나)는 성립이 안 된다. ‘-기로 소문이 나다/유명하다’에는 ‘소문이 나다’, ‘유명하다’의 의미로 볼 때 ‘속성’을 가리키는 말만이 선행할 수 있는데 심리형용사는 어떤 사태에 대한 사람의 감정을 담고 있는 말이어서 ‘속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심리형용사는 ‘-기로 소문이 나다/유명하다’ 구성에 쓰일 수 없다. (10나)에서처럼 ‘무섭다’의 경우 ‘-기로’ 구성에 쓰일 수 있는 이유는 (10나)에서 ‘무섭다’는 속성형용사, 즉 객관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이다.

논항구조와 관련하여, 심리형용사가 객관형용사(속성형용사)와 구별되는 어휘 부류라는 것은 문장의 접속에서도 나타난다.

- (12) 영희는 머리가 좋고, 마음씨가 착하고, 몸이 건강하다.
 (13) 가. *영희는 영리하고 궁급하다.
 나. *영희는 영리하고, 아빠의 소식이 궁급하다.

즉 (12)에서처럼 객관형용사들끼리 접속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13)처럼 객관형용사와 심리형용사가 접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두 어휘부류가 전혀 다른 종류의 부류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Lee (1976: 259-260) 참조).

앞에서 심리형용사문의 통사 구조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심리형용사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경험주의 논항을 문장밖의 요소인 주제어로 볼 수는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다음 (14)의 ‘나는’을 주제어로 처리함으로써 통사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 (14) 나는 영희가 부러웠다.

⁵ 사람에 따라서는 (9다)의 성립에 이상함을 느끼지 않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9다)가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경우의 ‘나는’은 아래의 (10다)의 ‘나는’과 성격이 다르다. 즉 (6)에서의 ‘나는’은 이른바 발화상황에 관련된 성분이고, (10다)에서의 ‘나는’은 ‘무섭다’의 논항이다.

나머지 가능성은 [영희가 부러웠다]를 서술절(문장술어)로 보는 방법과, 그렇지 않고 '영희가'를 서술어의 보어로 보는 방법이다.⁶

서술절로 볼 때의 문제점은 과연 절표지가 없는 절이 있을 수 있는냐는 것이다(남기심(1986) 참조). 보어로 볼 때의 문제점은 보어가 왜 '주격조사'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다.

본고는 (14)와 같은 심리형용사구문을 서술절로 설명하지 않고 보어성분을 설정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문제는, 보어가 하나의 문장성분이라면 왜 주격조사인 '-가'가 결합되느냐이다. 주어와 보어가 별도의 문장성분이라 할 때 격표지가 동일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고, 격표지가 같음에도 문장성분이 다르다면 주어와 보어의 정의가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여러 언어들에 조사함으로써 보어라는 문장성분이 필요한지가 밝혀지리라 본다.

본고의 잠정적인 견해로는, '-가₁'(주격조사) '-가₂'(보격조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주격조사로서의 '-가'와 보격조사로서의 '-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어에서 보격조사는 '-가'이고, '아니다', '되다', 심리형용사가 보어를 취한다.

보어의 특징은 서술어와의 밀착성이다. 보어와 주어는 모두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이지만 서술어와 밀착하는 정도가 다르다. 즉, 보어는 주어보다 서술어에 더 가까운 요소이다. 따라서 서술어와 보어는 하나의 구성성분을 이룬다.

(15) 철수는 두목의 보복이 두려웠다.

(15)와 같은 심리형용사구문에서 두 개의 명사구가 있다. 각각의 명사구를 표제명사로 해서 관계화구성을 만들면 다음과 같이 된다.

(16) ?철수가 두려웠던 두목의 보복

(17) 두목의 보복이 두려웠던 철수

그런데 왜 둘째 명사구인 '두목의 보복'은 관계화구성의 표제명사가 되지

⁶ Chung(1986), Lee & Kim(1988), Han(1987)이 이 범주에 든다. GB이론에 따르면 형용사는 격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14)의 '영희가'에는 주격조사 '-가'가 실현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Han(1987)은 GB이론의 입장에서 (12)와 같은 심리형용사구문에서의 보어의 격배당에 대해 Exceptional Case Marking Constructions라고 하고 있다. 즉, '영희가'가 격은 AGR로부터 받고, θ -역할은 서술어인 '부럽-'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12)와 같은 심리형용사구문을 S[주어-AP[보어-서술어]]의 단문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본다. 한편, 역시 GB 입장에서 Kim(1988)은 V'[NP V'[NP V]]의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못하는가? 그것은 국어에서 보어가 관계화의 표제명사로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보어가 관계화의 표제명사로 쓰일 수 없는 것은 서술어와의 밀착성 때문이다.

심리형용사는 두 개의 논항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논항에 대해서 가지는 통사적 결속력의 정도가 다르다. 대상의 명사구가 경험주의 명사구보다 심리형용사에 더 밀착해 있는 것이다. 보어를 요구하는 ‘되다’와 ‘아니다’의 경우에도, 보어는 관계화구성의 표제명사가 될 수 없다.

- (18) 가. 철수는 벼락부자가 되었다.
나. 철수는 바보가 아니다.
(19) 가. 벼락부자가 된 철수
나. 바보가 아닌 철수
(20) 가. *철수가 된 벼락부자
나. *철수가 아닌 바보

보어는 목적어보다 더 서술어에 밀착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적어는 관계화구성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지만 보어는 표제명사가 되지 못한다.

심리형용사구문을 [주어-[보어-서술어]]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임흥빈(1985:351)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심리형용사구문이 내포문으로 쓰일 수 없는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 (21) 저 꽃은 아름답다.
(22) 철수는 저 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23) 나는 영희가 부럽다.
(24)*철수는 내가 영희가 부럽다고 생각한다.

객관형용사인 (21)의 ‘아름답다’의 경우에는 (22)처럼 내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23)의 심리형용사의 경우에는 심리형용사문이 내포된 (24)가 비문인 이유는 무엇인가?

(24)가 비문임은 임흥빈(1985)에서 ‘나는’이 ‘부럽다’의 논항이 아닌 한 이유가 되었다. 그런데 (24)는 (25)와 같은 동작동사구문으로 바꿀 때 자연스럽게스러워진다.

- (25) 철수는 내가 영희를 부러워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4)가 비문이기 때문에 (23)의 심리형용사문에서의 ‘나는’이 서술어의 논항이 아닌 주제어이어야 하는가?

- (26) 철수는 내가 부러운가 봐.
- (27) 철수는 내가 부럽나 봐.
- (28) 철수는 내가 부러운 모양이야.
- (29) 철수는 내가 부러운 것 같다.

(26), (27)과 같은 문장에서의 ‘보다’의 문법적 자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 ‘보다’를 보조형용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이지만, (26), (27)문장에서의 ‘보다’는 내포문을 안은 상위문의 동사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보는 근거가 현재로서는 충분치 않다. (26), (27)의 ‘보다’가 상위문의 동사라면, (26), (27)은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주어는 발화상황의 한 요소인 화자 즉 ‘나’이다. 국어는 화용론적 전제에 민감한 언어이므로 화, 청자가 알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생략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26), (27)과 같은 문에서의 주어의 ‘생략’은 복원시킬 수 없는 생략으로서 일반적인 생략과는 다르다. 어찌되었건 ‘보다’의 주어는 ‘철수’일 수 없고, 실현되지 않는 ‘나’이며, 따라서 ‘철수는 내가 부럽다’라는 심리형용사구문이 ‘보다’에 내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심리형용사구문이 상위문이 내포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28), (29)에서는 ‘모양’, ‘것’과 통합하여 명사구를 이루고 있으므로, 역시 내포되어 있다.

(24)가 비문인 이유는 상위문의 동사 ‘생각하다’에서 찾아야 한다. ‘-고 생각하다’ 구성이 어떠한 문장이든 내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4)에서와 같이 심리형용사구문의 내포가 불가능한 것은 상위문의 서술어 ‘생각하다’ 때문이고 그것은 의미론적인 이유에서이다. 다른 예를 들어 보자.

- (30) 나는 참 기쁘다.
- (31)*나는(내가) 참 기쁘다고 생각한다.

(30)은 좋은 문장이다. ‘기쁘다’와 같은 형용사는 두 논항 즉 경험주와 대상 중에서 대상은 수의적이다. (30)이 내포된 (31)은 비문이다. (31)이 비문이기 때문에 (30)의 ‘나는’이 서술어의 논항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 (32) 가. *나는 내가 영희가 부럽다고 생각한다.
- 나. *나는 철수가 영희가 부럽다고 생각한다.
- 다. *나는 철수가 내가 부럽다고 생각한다.

- 라. *나는 철수가 영희가 부럽다고 생각한다.
 마. *철수는 내가 영희가 부럽다고 생각한다.
 바. *철수는 영희가 내가 부럽다고 생각한다.
 사. *철수는 자기가 영희가 부럽다고 생각한다.
 아. *철수는 영희가 자기가 부럽다고 생각한다.

(32)의 모든 문장은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화자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어색하다. 또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적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결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론적인 동기에 의해 내포가 불가능한 것을 두고, ‘순환성’의 기본적인 원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심리형용사는 객관형용사와 대립되는 자연류틀 이룬다. 그리하여 심리형용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심리형용사는 사람의 내적 심리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서술문 현재 시제에서 1인칭의 주어만을 허용한다.

- (33) 가. 나는 영리하다.
 나. 영희는 영리하다.
 (34) 가. 나는 무섭다.
 나. *영희는 무섭다.

둘째, ‘-어 하다’에 의해 동사문으로 되며, 두 논항은 동사문에서 주어-목적어 관계로 실현된다.

- (35) 가. 나는 선생님이 두렵다.
 나. 나는 선생님을 두려워 한다.

셋째, ‘-게도’에 의해 문장부사화한다.

- (36) 섭섭하게도 영희는 그냥 갔다.

넷째, 대부분 ‘-것’에 의한 보문을 취한다.

- (37) 나는 영희가 온 것이 기쁘다.

다섯째, ‘-기’에 의한 내포문을 취하는 어휘들도 있다.

- (38) 나는 집에 가기가 두렵다.

여섯째, 심리형용사문의 ‘나는 ____가 ____하다’의 ‘나는’은 ‘나에게는’으로 대체될 수 있다.

(39) 가. 나는 영희가 부럽다.

나. 나에게서는 영희가 부럽다.

이상의 각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인칭계약에 대해서는 ‘진술관점’이 이동함으로써,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이 김홍수(1988)에서 지적되었다.

둘째, ‘-어 하다’는 심리형용사를 심리형용사 아닌 형용사와 구별하는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 심리형용사는 ‘-어 하다’에 의해 예외 없이 동사문이 되지만, 심리형용사 아닌 형용사도 ‘-어 하다’에 의해 동사문이 되는 어휘가 있다.

(40) 가. 영희는 아주 겸손해 했다.

나. 영희는 아주 공손해 했다.

또, ‘-어 하다’에 의해 동사문으로 될 때, 반드시 두 논항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심리형용사라고 해서 반드시 두 논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1) 가. 나는 우울하다.

나. 나는 기분이 우울하다.

다. *나는 영희가 우울하다.

(42) 가. 착잡하다.

나. 기분이 착잡하다.

다. *나는 영희가 착잡하다.

(43) 가. 나는 고향이 그립다.

나. *나는 기분이 그립다.

(41), (42)에서의 ‘우울하다’와 ‘착잡하다’는 경험주 외의 논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분’과 같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명사항을 실현시킬 수 있다. 이 때의 ‘기분’은 ‘우울하다’, ‘착잡하다’의 보어가 아니다. 즉 (43가)에서의 ‘고향’과는 다른 성분이다.

셋째, ‘-게도’에 의해 문장부사화하는 것은 어휘개별적 특징이기 때문에, ‘-게도’에 의해 문장부사화하지 않는 어휘들도 있다.

(44) 알뜰게도, 영희는 혼자 빵을 먹고 있었다.

(45) *밧게도, *의심스럽게도, *그립게도

(46) 친절하게도

‘친절하다’는 객관형용사이지만 ‘-게도’에 의해 부사화한다. 따라서 ‘-게

도'가 심리형용사의 전용적인 특징이라 할 수 없다.

넷째, '것'에 의한 보문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것'에 의한 보문을 취하지 못하는 어휘도 있다.

(47) 나는 영희가 나를 배신한 것이 분하다.

(48) 가. 나는 고향이 그립다.

나. *나는 고향에 가는 것이 그립다.

(47)의 '분하다' 따위는 '것'에 의한 보문을 취하지만, '그립다'는 보문을 취하지 못한다.

다섯째, '-기'에 의한 내포문을 취하는 어휘가 있다.

(49) 나는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웠다.

(50) 나는 남들 보기가 부끄럽다.

(51) 나는 돈을 또 내기가 억울했다.

(52) 나는 공부하기가 지겨웠다.

그런데, '-기'에 의한 내포문을 취하는 형용사들의 공통되는 의미적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밝혀져 있지 않다.

여섯째, 경험주가 '-에게는'으로 나타날 때 문법성의 정도가 어휘마다 다르다.

(53) 나에게서는 영희가 밉다.

나에게서는 영희가 원망스럽다.

나에게서는 영희가 의심스럽다.

나에게서는 영희가 미덥다.

나에게서는 영희가 부럽다.

나에게서는 영희가 불쌍하다.

나에게서는 영희가 그립다.

나에게서는 영희가 반가웠다.

나에게서는 누가 올 지가 궁금하다.

나에게서는 내가 돈을 딴 것이 기쁘다.

(54) 나는 영희가 밉다.

나는 영희가 원망스럽다.

나는 영희가 의심스럽다.

나는 영희가 미덥다.

나는 영희가 부럽다.

나는 영희가 불쌍하다.
 나는 영희가 그럽다.
 나는 영희가 반가왔다.
 나는 누가 올 지가 궁금하다.
 나는 돈을 탄 것이 기쁘다.

(53)에 대해서는 문법성이 의심스럽다고 본다. 그러나 비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54)는 문법성이 아주 자연스럽다. ‘-에게’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의 직관으로는 (53)의 문장들은 대단히 어색하다.⁷ 따라서 이른바 심리동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던 심리이동변형은 ‘-에게’ 문 자체가 의심스러우므로 국어에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휘마다 ‘-에게’ 문의 문법성의 정도가 다르다면, 어떤 의미적 요인에 의해서 문법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것의 설명이 가능한지는 검토해 볼 만한 문제일 것이다.

심리형용사는 형용사 전체에서 어떠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어휘들인지에 대한 분명한 판별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움을 보았다. 따라서 심리형용사가 과연 하나의 자연류를 이루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⁸

본고에서의 검토에서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바와 같이 심리형용사들을 정의할 수 있는 공통적인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심리형용사들간의 이질성이 두드러진다. 더구나 심리형용사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독특한 통사적 구성을 이루는 형용사들이 있다.

- (55) 가. 나는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나. *당신은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56) 어떻게 살아나갈 지 앞일이 막연하다.

‘간절하다’는 주어에 대한 인칭제약을 가지므로 심리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생각, 기원, 소망’의 주어를 또 가진다. ‘막연하다’도 인칭제약을 가지면서, ‘앞일, 생계’ 등의 주어를 가져야만 한다.

심리형용사는 김홍수(1988)에서 지적된 대로 ‘주체 중심’이나, ‘대상 중

⁷ Park(1972:61)에서도 ‘-에게’ 문의 문법성이 의심스러움을 지적하고 있다.

⁸ 이 점과 관련해, 김영희(1980: 9-10)에서는 주관동사/중성동사/객관동사로 형용사들 3분할 바 있고, 김홍수(1988)에서는 준심리동사라는 부류를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김영희(1980)에서의 중성동사, 김홍수(1988)에서의 준심리동사가 과연 어떤 통사, 의미적 특성을 지닌 어휘들인지, 그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통사적 기준은 분명치 않아 보인다.

십'이냐에 의해 크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57) 나는 외롭다.

(58) 나는 영희가 밋다.

'외롭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경험주만을 요구한다. 반대로 '밋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경험주 외에 대상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전자는 '주체 중심', 후자는 '대상 중심'이다. 본고의 잠정적인 결론은, '주체 중심', '대상 중심'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휘에 따라 대상을 요구하는 정도가 '밋다'와 같이 필수적인 경우에서부터 '외롭다'처럼 전혀 요구하지 않는 경우까지 연속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증명은 심리형용사에 속하는 어휘들을 모두 조사함으로써 이루어지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강범모 (1983) '한국어 보문의 구조와 의미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영희 (1980) '평가 구문의 통사론적 연구,' 한국학논문집 7,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 김홍수 (1987) "'좋다' 구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국문학 97, 국어국문학회.
- _____ (1988) 현대국어의 심리동사 구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남기심, 고영근 (1985)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박병수 (1983) '문장술어 의미론: 중주어구문의 의미 고찰,' 말 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심재기 (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 이남순 (1985) '주격증출문의 통사구조,' 국어국문학 93, 국어국문학회.
- 이익섭 (1978) '피동성 형용사문의 통사구조,' 국어학 6, 국어학회.
- 임흥빈 (1972)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 28, 국어연구회.
- _____ (1974) '주격증출론을 찾아서,' 문법연구 1, 문법연구회.
- _____ (1985) '국어의 '통사적'인 공범주에 대하여,' 어학연구 21.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정인상 (1980) '현대국어의 주어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4, 국어연구회.
- 최현배 (1984) 우리 말본(열한번째 고침); 정음사.
- 허 응 (1981) 국어학, 샘문화사.

- 홍사만(1985) 국어어휘의미연구, 학문사.
- Belleti, A. and L. Rizzi (1986) 'Psych-verbs and th-theory,' *Lexicon Project Working Papers* 13, MIT.
- Cho, Euiyon (1988) *Some Interactions of Grammar and Pragmatics in Korea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Chomsky, N. (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R. Jacobs and P. Rosenbaum, 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Mouton, The Hague.
- Chung, Hee Sung (1985) *Korean Language Information Processing*, Ph.D. dissertation, U. of Tokyo.
- Cook, Eung-Do (1968) *Embedding Transformations in Korea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 Gruber, J.S. (1976) *Lexical Structures in Syntax and Semantics*,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Amsterdam.
- Han, Hak-Sung (1987) *The Configur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Languag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Jackendoff, R.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The MIT Press, Cambridge.
- Kang, Myung-Yoon (1988) *Topics in Korean Syntax: Phrase Structure, Variable Binding and Movement*, Ph.D. dissertation, MIT.
- Kang, Young-Se (1986) *Korean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Keenan, E.L. & Comrie, B (1977) 'Noun phrase accessibility and universal grammar,' *Linguistic Inquiry* 8.1.
- Kim, Nam-Kil (1978) 'Exclamatory sentential complements in Korean,' *Korean Linguistics* 1,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 Kim, Yang Soon (1988) *Licensing Principles and Phrase Structur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 Kuno, S. (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The MIT Press, New York.
- Kuno, S. & Young-Joo Kim (1985) 'The honorific forms of compound verbals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 Larson, R. (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

- Lee, Chungmin (1976) 'Cases for psychological verbs in Korean,' *Linguistic Journal of Korea* 1-1.
- Lee, Hong Bae (1970) *A Study of Korean Syntax*, Ph.D. dissertation, Brown University.
- Lee, Hong-Bae and Mi-Kyung Kim (1988) 'Double-nominative constructions in Korean,'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2.
- Li, C.N., ed. (1976) *Subject and Topic*, Academic Press, New York.
- Park, Byong-Soo (1972) *A Study of Korean Verb Phrase and Complement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Verb h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 _____ (1982) 'The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revisit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 Postal, P. (1971) *Cross-over Phenomena*, Holt, Reinhart, Winston, New York.
- Song, S.C. (1967) *Some Transformational Rules in Korean*,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Williams, E. (1980)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11.
- _____ (1984) 'Grammatical Relations,' *Linguistic Inquiry* 15.
- Yang, In-Seok (1972) *Korean Syntax: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ABSTRACT

Some Problems on Psych-adjective Sentences of Korean

Sejung Kim

Psych-adjective sentences have been discussed due to the special character in their syntax and semantics. In Korean, they have two noun phrases. The issue is which of the two NPs is the subject of a sentence and what is the grammatical function of the other NP. We argue that both NPs are all arguments of psych-adjectives, and the first NP (in unmarked word order) is a subject and the second NP is a complement. That is, psych-

adjectives are special kind of predicate in that they require two arguments, 'experiencer' and 'object'. Thus, the second NP arguments of psych-adjectives, 'anita'(not to be), 'toeta'(become) are grouped as a natural class since they form an AP together with those predicates. However, the reason why the nominative case marker '-ka' is attached to the complement NP argument needs to be solved. And, the dative marker '-eke' can be attached to the first NP argument of some psych-adjectives should be explained. The commonness and difference of psych-adjectives are also discussed.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48
해영회관 9층 국어연구소